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1호 【루계 제25254호】 주체105(2016)년 4월 20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일편단심의 분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
조선로동당 자강도대표회 진행

천만군민이 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 선군의 위력으로 최후승리의 진군길을 폭풍쳐 내달리는 벅찬 시기에 조선로동당 자강도대표회가 강계시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표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등의 구호들이 대표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표회에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백전백승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대표회에서는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대표회에서는 도당위원회사업이 총화되였다.

보고자는 도당위원회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사업을 진행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고 강계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성을 다 바치였다.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고 피줄기인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혁명사적자료들과 사적물, 혁명적구호문헌들을 새로 발굴고증하였으며 망림혁명사적관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오는 과정에 당사업과 경제사업, 인민생활향상에서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보고자는 준엄한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길을 끄떡없이 걸어온것은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선군정치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깊이 새겨주고 그들을 수령결사옹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가 도안의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오는 속에 강계정신이 나래치게 되였다.

보고자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고 간부대렬과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였으며 당정책관철에서 요령주의와 형식주의, 패배주의를 배격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교전적로작들인 《당세포의 5대과업》과 《당세포를 강화하자》,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에 수많은 당세포들이 충성의 세포로 되였다.

탈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뚫을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당사상사업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으며 근로단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모든 동맹원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준비시키고 특히 청년들이 당의 후비대, 익측부대,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일군들속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기풍이 확립되게 함으로써 어머니 우리 당을 따르는 인민들의 신뢰심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보고자는 일군들과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지향시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는데서 큰 전진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중소형발전소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사회주의전성기 장자강의 불야경이 펼쳐지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려나오게 되였으며 9월방직공장과 만포방사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이 현대화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특히 CNC기계공업을 개척하여 주체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만포연하발전소를 일떠세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리현판을 받아안은것은 자강땅의 큰 자랑으로 된다.

보고자는 70일전투기간 홍주청년3호발전소와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건설을 벌리는 과정에 난관을 박차며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자강도인민들의 혁명적기개가 남김없이 과시되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날 화전농사로 살아가던 자강도인민들이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험한 명문고개를 끊임없이 넘으시며 도가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대표회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대표회에서는 도당검사위원회사업이 총화되였다.

대표회에서는 도당위원회 지도기관 선거가 진행되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낼 대표자선거와 방청자추천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추대하는 추대사를 김재룡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추대하는것은 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심과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만군민이 심장으로 받들어모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과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군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렬에 높이 올려세우신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민족사적대공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세상에 유일무이한 청년강국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대기적, 대비약을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도 정권도 군대도 인민을 위해 필요하며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절대불변의 신조로 간직하시고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계신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는 자신에게 정든 고장이라고 하시며 도의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을 이어 도의 전반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흥주탄광장과 강계돼지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과 버섯, 남새생산기지들, 장자강인민유원지와 인풍원 등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기지들이 훌륭히 마련되여 도안의 인민들에게 당의 은정이 뜨겁게 흘러들고있다.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전체 대표회참가자들과 도안의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추대할것을 정중히 제의하였다.

대표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현실로 꽃펴나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에 눈부신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제의에 전적인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억세게 나아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대표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 무한한 감격과 기쁨에 넘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보낼 대표자들을 선거하고 방청자들을 추천하였다.

조선로동당 자강도대표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선군조선의 국력을 천백배로 다지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

원수동지

나는 당신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경절인 독립절에 즈음하여 친절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수리아령토의 통일과 정화, 안전을 소망하는 수리아인민의 념원에 부합되게 모든 문제를 민족대화를 통하여 정화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나라와 인민의 노력을 지지해주고계시는 당신의 진실한 립장을 높이 평가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6년 4월 18일 다마스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
로씨야에서 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이 로씨야 씨비리국립교통종합대학에 모셔졌다.

현판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2001년 8월 11일 다녀가신 대학》이라고 조문과 로문으로 씌여져있다.

현판제막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제막식에는 로씨야 씨비리국립교통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한 대학교직원, 학생들, 국제주의전사야. 메. 노비첸꼬의 딸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현지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대학총장 마나꼬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2001년 8월 력사적인 로씨야방문의 나날에 대학을 참관하신것을 모든 교직원, 학생들은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대학방문 1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조선민족최대의 명절인 태양절을 앞두고 사적현판을 제막함으로써 그이를 대학에 모시였던 영광을 길이 전해갈수 있게 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이전 대학총장 꼬마로브는 당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직접 안내해드린것을 인생의 커다란 행운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뜻깊은 그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사적현판이 제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칭송의 열기가 온 누리에 뜨겁게 끓이치고있는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우리 재중조선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진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수령님의 탄생 104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뜻깊은 이 시각 저희들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그리운 조국으로 달려가고있으며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강성국가건설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과 흠모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있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동포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무적필승의 락월한 선군령도로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대통운의 날이며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일대 시변적인 날입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항일혁명의 만고풍상을 헤치시며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혁명전통의 만년재보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은 오늘도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폭풍쳐나아가는 주체조선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한세기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강철의 령장이시며 두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20세기 정치무대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만고의 업적을 쌓으신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더없는 행복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타향만리에서 망국의 피눈물을 뿌리던 우리 재중조선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조국통일과 민족대단합,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애족사업에서 자기의 민족적본분을 다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로 즐기차게 흐를수 있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길이 빛나고 조국땅우에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대화원으로 펼쳐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조직으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였으며 중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조선공민된 크나큰 영예와 긍지를 가슴가득 안겨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위업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속에서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으며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는 한편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심으로써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십니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재중조선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안겨주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중조선동포들을 조국에 불러 대회주석단에도 내세워주고 저희들이 올리는 소박한 말도 정깊게 들어주시면서 은정넘친 기념촬영까지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우리들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 재중조선동포들의 가슴가슴은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몸 다 바쳐나갈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조국의 고귀한 혁명전통이 마련된 항일혁명전구들에서 사는 재중조선동포들답게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들을 정중히 보존관리하고 널리 선전하며 동포들속에서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조국인민들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습니다.

우리들은 세계평화와 질서를 유린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여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적대세력들과 박근혜역적패당의 온갖 도전과 전쟁도발책동을 선군의 보검으로 짓부셔버리기 위한 조국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전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동포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5(2016)년 4월 15일

자주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위력이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발표하신 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101(2012)년 4월 20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고 령도하여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는 기념비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뚜렷이 천명하시였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평생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자주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현대력사를 새롭게 개척하고 빛내이신 탁월하고 세련된 혁명의 령도자이시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이며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대어이다.

자주를 혁명신조로 간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혁명의 원리로, 혁명방식으로 정립하시고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해오시였다. 그처럼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제국주의반동들의 반혁명적공세와 좌우경기회주의자들의 간섭책동을 걷음마다 짓부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자주로선의 정당성과 필승불패성의 뚜렷한 증시이다. 자주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는데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것, 이것이 장구한 우리 혁명의 력사적총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자주의 기치에는 절세의 위인의 사상리론적에지가 빛발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였다고 가르치시였다.

예지는 위인의 통찰이다.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령도자의 사상리론활동은 특출한 사상리론적에지에 의하여 담보되게 된다.

조선혁명은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었으며 기존공식과 방법으로는 수행할수 없는 전인미답의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 혁명과 건설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종합, 분석, 일반화하시여 기성의 리론, 다른 나라의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독창적인 혁명사상, 혁명리론들을 창시하시였다.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거창한 혁명실천속에서 창시된 사상,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대중이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과학적인 사상,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여도 영원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상이라는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비상한 견인력이 있다.

지금 우리 혁명의 전두에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에지로 천만군민을 최후승리에로 이끄시며 세계정치의 흐름을 주도해나가고계신다. 천만갈래로 얽힌 복잡한 사태의 본질도 순간에 포착하시고 명확한 해답을 주시며 하나에서 열, 백을 헤아리고 새로운 사상을 도출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적인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는 만사람을 경탄시키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주의 기치를 보검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주체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자주의 기치에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굽힘없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배짱이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시종일관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 혁명위업을 배심있게 떠밀어오신 수령님의 혁명실천은 현대정치사에 특기할 기적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드센 신념과 배짱은 령도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기질이다. 그 어떤 외성력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철의 신념과 배짱을 지녀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온갖 적대세력과의 형언할수 없는 간고한 투쟁을 동반한다. 세계정치사는 자주를 표방했던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압력과 위협공갈에 굴복하여 자존심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우고 망국의 길로 굴러떨어진 피의 교훈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인 동시에 신념과 의지, 배짱의 대결이다.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아가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립압살하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것이였다. 돌이켜보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군사적위협은 그칠새 없었고 우리 혁명앞에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이 있고 정권이 있고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든든한 배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무비의 담력으로 난국을 맞받아나가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면서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오늘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과시되고있다. 주체의 길을 따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철의 신념, 억년 드놀지 않는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녀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당당히 맞서나가며 자기의 절심과 의지에 따라 하고싶은것을 다하고있다. 자주의 핵외성이 천지를 진감하고 주체위성이 무변광대한 우주로 날아오르는 민족사적장거들이 련이어 펼쳐지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정의와 진리, 존엄이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제일강자, 제일배짱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진은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자주의 기치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담겨져있다.

혁명은 수령의 뜻이고 의지이다.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령도자에게 있어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것보다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없다.

홍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 혁명의 승리가 있다. 지난날 홍대가 약했던탓에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였다. 지나온 력사는 자주는 곧 선군이며 홍대를 강화해나가는 길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인민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혁명의 홍대를 틀어쥐고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쳐온 강철의 령장, 탁월한 군사전략가의 혁명생애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군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으며 혁명령도의 전행정에서 홍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여오시였다. 홍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홍대에 의거하여 항일혁명전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또 한분의 선군령장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약육강식을 생존법칙으로 삼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지금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나라 인민들이 동란으로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제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과 제재와 봉쇄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오늘의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사상이 위대하고 계승이 위대한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웅적한생이 어려있는 자주의 기치가 있고 대를 이어 걸출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있기에 우리 혁명의 앞길은 창창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자주를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조 학 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꽈도르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꼬 또

에꽈도르공화국 대통령

라파엘 꼬레아 델가도각하

나는 귀국에서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냅니다.

나는 귀국정부가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4월 19일 평 양

◁ 혁명일화와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 ▷

구봉령의 메아리

사람들은 지금도 16년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과 더불어 꽃펴나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졌던 혁명일화 《구봉령》을 잊지 않고있다.

억척으로 다져진 로반이며 패인 자리 한점없이 번듯하게 정리된 령길, 잘 깨인 물홈이며 길섶에 곱게 피은 꽃들…

말리는 차창너머로 령길에 남모르는 정성을 고인 이름모를 주인공들의 갸륵한 마음을 읽으시며 뜨거운것을 금치 못하신 위대한 장군님.

행바루로 오르시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로관리에 여념이 없는 도로관리원들을 보시자 바쁘신 길을 미루시고 차를 세우게 하시였으며 김성녀로인과 그의 가족소대원들을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였다.

해별과 바람에 검실검실해진 얼굴들을 한사람한사람 익히시며 흙냄새가 배여 내밀기 저어하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신 어버이장군님.

행복에 울고웃으며 우리 장군님앞에 선 가족소대장 김성녀로인은 과연 어떻게 되어 구봉령도로의 주인으로 되였던가.

그는 원래 성간군탄정사업소에서 일하였다. 그무렵 그는 굽이가 많고 경사가 심한 구봉령에서 가끔 사고가 나군 한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오죽하였으면 운전사들이 구봉령을 《물길한 령》이라고 불렀겠는가.

김성녀동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자주 그 험한 령길을 넘으시여 강계로 가신다는 생각이 미쳤다.

그는 지체없이 도로관리원이 될것을 결심하였다. 당조직에서는 그의 결심을 기특하게 여기면서도 학아소와 멀리 떨어진 산중에서 젖먹이를 키우는것이 문제에서 망설이였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그의 결심을 막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주체58(1969)년 30대에 접히면서부터 그는 구봉령구간을 맡아보는 도로관리원이 되였다.

쉽지 않은 결심, 헐치 않은 일이였다. 갓난아기를 엄마등이기라도 한듯 나무에 업혀놓은 다음 흙채기에 모래를 날라다 펴고 도로옆에 물길을 파는 작업,

아기의 아츠러운 울음소리에 허겁지겁 달려가 아기몸에 까맣게 달라붙은 개미들을 털고 또다시 일손을 잡던 그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나가실 길에 주단을 펴드리지는 못할망정 내 한몸을 다 바쳐서라도 기어이 본보기도로로 만들리라.)

이런 불타는 일념으로 한창시절에도 멋을 부려보지 못하며 걸어온 인생길이였다.

한평생 오로지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가 맡은 도로를 기쁨속에 지나가시기를 일일천추로 갈망하면서 구봉령도로에 심혼을 바친 도로관리원,

한 녀성이 걸어온 가슴뜨거운 인생길을 뜨겁게 헤아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동무들과 같은 애국자가 많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것입니다.》

감격이 극하면 흐느낌도 소리없는 법인가. 누를길 없는 오열에 진정 못하는 그들의 가슴가슴에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에 넘치신 음성이 다정하게 들려왔다.

《도로가 아주 좋습니다. 동무들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령길에서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김성녀로인과 그의 가족소대원모두를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단란한 가족사진과도 같은 불멸한 화폭을 남기신 우리 장군님…

수십년간 품어온 간절한 소원을 성취한 그날로부터 김성녀로인과 그의 가족소대가 보낸 날과 달은 행복한 꿈의 련속과도 같은것이였다.

먼동이 터오는 이른새벽에
간절한 소원안고 이 길을 쓰네
수령님 지나가실 넓은 길우에
이 마음을 비단필로 펴놓아가네
…

눈 마음속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새벽하늘에 유난한 새별을 이고 도로에 나가 흙을 싸안아 정히 펴나갔고 밤이면 조약돌을 곱게 다듬어 길섶을 촘촘히 어미여갔으며 쏟아지는 비발속에서도 무너져내리는 돌사태를 몸으로 막아나섰던 이들, 땀과 정을 묻으면서도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불타는 소원만을 안고있던 김성녀로인과 그의 가족소대원들이였다.

기쁠 때에는 기뻐서 더욱 그리웠고 힘들 때에는 힘겨워서 그리워지는 우리 장군님.

멀리에 있어도 구봉령과 더불어 살삼한 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자신께서도 그들이 보고싶다고, 일군들이 대신 찾아가 안부도 물어보고 인사도 전하여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들을 예술영화의 원형으로 내세워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김성녀로인이 일흔번째의 생일을 맞을 때에는 은정어린 생일상도 보내주시고 황해남도에 시집갔던 맏딸이 어머니의 가족소대에 소속되여 일한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에는 정말 훌륭한 가족이라고 값높이 일러주시였으며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에는 김성녀로인과 그의 가족소대에 대한 그리움에 잠기시여 김성녀로인도 이제는 나이가 많은데 변함없이 도로관리에 정성을 쏟아붓고있다고, 그는 수령님께서 자주 외우시던 태성할머니와 같다고 뜨겁게 추억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날 그냥 잠자는 아이가 민망하여 안타깝게 흔들어우려는 김성녀로인의 딸을 보시며 그냥 놔두라고, 이다음에 커서 기념사진을 보면 후회할것이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신 우리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고후회는 남다른 정을 불러일으키는 애였다.

언제인가 그날의 일을 추억하시며 그때 엄마품에서 잠을 자던 후회가 잘 자라는가고, 그애가 나를 알아볼가라고 정답이 말씀하시며 성장한 손녀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와도 같이 그를 그려보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열화같이 사랑하시고 위해주신 인민의 모습이 비껴있는 구봉령일가,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과 맺으신 정과 열의 세계가 끝없이 이어지는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혼연일체의 력사이다.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제표창이 새로 제정되였을 때 몸소 수여식에 참석하시여 우리 장군님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김성녀로인을 축하해주시고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때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추억속에 있는 고후회도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김성녀로인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시던 그 눈물겨운 화폭을 잊지 않고있다.

오늘도 먼길 떠나신 어버이장군님께서 금시라도 령길을 지나실것만 같아 사무치는 그리움에 가슴을 불태우며, 우리 장군님과 맺은 혈연의 정을 영원히 꽃피울 충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령길에 진심을 바쳐가는 김성녀로인과 그의 가족소대,

16년전 아무리 흔들어도 깨나지 않아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도 안타깝게 하였던 후회, 학생소년들의 텔레비죤지덕체자랑대회의 주인공으로 나섰던 고후회도 어느덧 다 자라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곰도 많고 포부도 큰 후회도 역시 할머니가 택하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걷는 그 길을 대를 이어 꿋꿋이 걸을것이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영원한 일편단심으로 위대한 당을 따르는 충정의 길을 걷는 구봉령일가의 고결한 인생길,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인 일심단결의 력사를 끝없이 전하며 구봉령의 사랑과 보답의 메아리는 영원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당의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를 붓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

《청년전위》신문창간 70돐을 맞으며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철저한 대변자, 청년강국의 주인공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자랑떨치는 주체적출판보도물인 《청년전위》신문!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향한 충정의 70일전투의 날과 날이 흐르는 속에 《청년전위》신문창간 70돐을 맞이한 청년전위신문사의 전체 기자, 편집원들과 종업원들은 주체적인 출판보도물건설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백만자루, 천만자루 품도 아끼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세상에 류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해방된 조국의 첫 기슭에서 어버이수령님 몸소 창간해주시고 《청년》이라고 그 제호를 제정해주신 《청년전위》신문의 력사가 어느덧 70년이 되였다.

세월의 흐름속에서 《청년전위》신문은 언제나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청년들을 애국의 한길, 부강조국건설의 한길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성스러운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여왔다.

오늘도 우리의 눈앞에는 새 민주조선건설에서 주요역군은 청년들이라시며 민주주의기발아래 하나로 뭉쳐진 청년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시키려면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는 신문부터 발간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우렷이 안겨온다.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과 세심한 령도의 손길에 의해 《청년전위》신문은 마침내 주체35(1946)년 4월 20일 힘찬 고고성을 터치게 되였다.

청년보의 창간을 선포해주신 우리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신문사사업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던가.

청년전위신문사의 연혁에는 눈물겨운 하나의 이야기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주체38(1949)년 9월 23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일찌기 잃은 크나큰 슬픔과 비통함에 산천초목도 목놓아울던 력사의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상실의 아픔을 애써 누르시며 당시 민주청년사에서 올린 기사원고를 보고계시였다.

그 원고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고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나날에 쓰신 친필이 새겨져있었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신문에 실으려고 민주청년사에서 가져온 원고입니다.

장군님께서 너무 바빠하시기에 올리지 못하고있었는데 꼭 보아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1949년 9월 21일
김 정 숙》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피눈물을 삼키는 경위대원들을 바라보시며 김정숙동무가 후대들을 위하여 부탁하고 간 글인데 꼭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사원고를 한장한장 번져가시며 지도해주시였다.

그 기사는 며칠후 당시의 《민주청년》신문에 실리게 되였다.

가렬처절한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청년보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더더욱 뜨거웠다.

준엄한 전화의 그 나날 자신께서 계시는 최고사령부와도 가깝고 교통도 비교적 편리한 곳을 골라 소개지로 정해주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되였을 때에는 민주청년사(당시)의 후퇴정형을 료해하시며 운반수단과 식량도 몸소 해결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정녕 그것은 모진 시련과 풍파속에서도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려는 《민주청년》신문과 그 집단에 대한 값높은 평가, 크나큰 믿음이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은 해주—하성사이 철길개통식의 날 기자들은 천리마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시며 개통렬차의 맨 앞칸에 태워주신 감동적인 이야기에도, 몸소 신문에 실린 기사 《인간의 생명을 위하여》를 보아주시고 로동당시대, 천리마시대 사람들의 도덕상태를 알수 있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독보하도록 하신 이야기에도 깃들어있다.

《청년전위》신문이 걸어온 자욱자욱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도 숭엄히 깃들어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보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민주청년사를 찾으시면서 출판보도물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50돐을 하루 앞두고 민주청년사를 찾으시였을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찍는 사진 한장한장이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을 교양하는 거울로 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탄생 50돐 특집을 특별히 힘을 넣어 잘하도록 하시였다.

그후 언제인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주청년》에 실린 한 기사를 읽으시고 몸시 기뻐하시며 그 기사의 주인공들이 발휘한 사상정신적풍모가 로동당시대, 천리마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특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기자, 편집원들의 긍지와 행복은 출판보도활동의 성과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이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력사의 그 나날들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청년전위신문사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되였고 그들의 가슴속에 신념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준 교무적기치로 되였다.

하기에 이들은 류례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혁명의 필봉을 용대처럼 억세게 틀어쥐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로 취재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어버이장군님의 눈물겨운 강행군실록을 력사에 소리높이 전하고 장군님께 그토록 큰 힘을 안겨드릴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오늘 승고한 후대판, 미래판을 지녀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몇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가 벌어지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청년전위》신문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서 나서는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4차 초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청년들은 《청년전위》신문을 빠짐없이 보아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오늘 《청년전위》신문은 수령의 신문, 혁명의 계승자들의 신문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고있으며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500만 청년대군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워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받드는 믿음직한 붓대가 되여 언제나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걸어온 청년전위신문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충직한 나팔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며 청년맹장들이 투쟁하는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잘바람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도록 드세찬 사상공세의 포성, 보도선전공세의 포성을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남

청년강국건설의 나날을 더듬어

백두전구에 울려퍼진 총공격명령

주체104(2015)년 4월 19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호, 2호발전소의 전기생산능력을 가늠해보시고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도 하나하나 타산해보시며 발전소건설을 당창건 70돐까지 끝내기 위한 공사목표와 공정계획도 친히 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철도수송을 기본으로 하면서 륙로수송과 배수송을 배합하는 문제와 발전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면서 발전소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작전안을 펼쳐주시였다.

이와 함께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즉시에 파견하여 군민협동작전을 펴되 철저히 청년동맹이 주인이 될데 대해서와 발전소건설진행정형을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세울데 대해서 밝혀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백두전구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조직지휘밑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당창건 70돐까지 끝내기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게 되였다.

크나큰 믿음, 뜨거운 은정

환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앞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나설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스스로 찾아와 인생의 첫출발을 떼고 백두대지에 애국의 삶을 박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치며 청춘대학졸업증을 받은 청년들이 기둥으로 서있었다고, 이런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종대를 참가시킬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이렇게 되여 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장으로는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백두산잘바람에 돛을 달고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기상을 떨쳐온 피끓는 청춘들의 부대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종대가 《전민무장화》라는 글발을 새긴 기발을 펄럭이며 로농적위군종대의 선두에서 나아가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충정의 70일전투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평안남도

철야진군의 격전장을 보려면 평남땅을 보라

정신력발동을 승리의 근본열쇠로 틀어쥔 도당위원회일군들

오늘의 충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에서 평안남도가 앞장에 서서 기수마냥 노도치며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전력과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고 나라의 손꼽히는 세멘트생산기지를 비롯한 인민경제 기간공업이 집중되여있으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의 드넓은 협동벌과 밀음직한 병기창인 남흥의 비료생산기지가 있는 평남땅…

이 대격전장에서 지난 50여일동안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도적으로 높이 세운 전투목표보다 전력생산은 순시로 14만kW, 석탄은 하루평균 5 100여t 증산, 세멘트생산은 최고 1 200t, 비료는 매일 수백t이나 증산되는 혁혁한 성과가 이룩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만풍동지류지토지정리, 평남관개구조물보수공사, 운흥지선파 오은저수지물길공사를 비롯한 큼직큼직한 대상공사를 끝내고 모든 시, 군들에서 전투목표로 내세웠던 수천대의 뜨락또르와 양수동력설비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거름실어내기 등 농사차비를 결속하고 씨뿌리기가 마감고비에 들어섰다. 이것은 20여년래 있어보지 못한 경이적인 성과이다.

수자와 사실이 보여주는것처럼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고있는 곳이 바로 평남땅의 현실이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의 비상한 각오와 공세적인 작전,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전력생산이 늘어나고 석탄과 비료, 세멘트가 팡팡 쏟아져나와 전진하는 조국에 활력을 부어주고 총진군대오에 비약의 숨결이 약동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원대한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새것을 창조하고 발아들이는데서 개척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며 일단 시작한 일은 완강하게 내밀어 결장을 보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일군들부터가 총정의 70일전투가 가지는 중요성과 도앞에 나선 무거운 임무를 뼈에 새기고 분발해나섰다.

도당책임일군은 오늘의 70일전투에서 굴지의 기간공업들과 서해곡창 열두삼천리벌과 같은 나라의 굵직굵직한 경제명맥들이 피줄기처럼 집중되여있는 도의 중요성에 맞게 도안의 모든 일군들이 결사의 각오를 안고 뛰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70일전투승리의 근본열쇠를 바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데서 찾았다.

책임일군들은 평안남도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석탄생산을 중점으로 틀어쥐고 치밀하게 설계하고 작전하였다.

모든 채탄중대들에서 전투계획외에 하루 15t의 석탄을 더 생산하자!

이것은 도적으로 100차량 이상의 석탄을 증산해야 하는 엄청난 수자였다.

이 하나만 보아도 보통의 생각, 보통의 각오, 구태의연한 일본새로는 엄두도 못 낼 높은 고지이다.

도당위원회가 잡한것은 온 도에 석탄을 증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한것이다.

도안의 모든 단위 책임일군들과 초급일군들에 이르기까지 석탄의 중요성을 깊이 심어준것은 탄광들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한편 자기 단위가 맡은 일을 더 잘 수행할수 있게 하는 계기로 되게 하였다. 도안의 부원이상 일군들이 자주 갱막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어울려 일하며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물질적지원을 아끼지 않고있다. 그런가 하면 탄광을 지원하는 날에는 공장, 기업소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떨쳐나서 탄광을 물질적으로 도우며 탄부들과 뜨거운 숨결을 같이하고있다.

이렇게 되니 중요생산단위를 책임진 일군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무겁게 자각하고 보폭을 크게 내짚으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게 되였고 그런 속에 일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일신되였다. 그야말로 하나의 불도가니로 화한 온 도가 비약의 기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실례를 놓고보자.

련합기업소에서는 70일전투에 들어와 그전에 비해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4월 19일현재 7만 5 440여t의 석탄이 증산되였고 많은 채탄중대들에서 앞선 중대를 따라잡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오히려 뒤떨어졌던 중대들이 대오의 기수로 활약하고있다. 결과 련합기업소적으로 이제 떠질 안 있어 모든 탄광들이 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모든 탄광의 탄부들의 드세찬 돌격전, 비상한 공격속도에 의하여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북창지구, 개천지구,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도적으로 하루평균 5 100여t의 석탄을 증산하는것이 평범한 일로,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이것은 몇개의 렬차편성과 맞먹는 량이다.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는 한전의 모습은 대동력기지에도 새로운 화폭을 펼쳐놓게 하였다.

화차전투기, 기계삽들의 만가동, 만부하가 보장되였다. 하지만 제때에 석탄을 처리하지 못할 정도여서 북창의 가두녀성들이 저탄장으로 달려오고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운탄직장에서는 한 교대가 하루에 60차량의 석탄하차를 돌파하여 최고실적을 기록함으로써 북창전구를 들었다놓았다. 막혔던 물목을 터쳐놓은듯 물밀듯이 들어오는 화차의 부림시간을 줄이기 위해 화차축함받치개를 창안제작하여 화차의 탈선을 방지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투기간에 생겨났다.

하기에 70일전투에서 전력공업부문의 전형단위가 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는 물론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에서도 70일전투기간에 호기운영대수를 부쩍 늘이고 발전설비운영을 잘함으로써 전투전에 비해 순시로 수십만kW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실로 막대한 전력이 증산되는 기적이 일어나고있다.

이것이 바로 비상히 앙양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이다.

우리의 청춘들을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에 맞게 청년돌격대를 꾸어 그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한것 역시 도당위원회에서 중시한 문제이다.

도안의 그 어느 시, 군, 공장과 기업소, 농장들에 가보아도 청년들이 커다란 역할을 놀고있다. 도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청년돌격대원수는 무려 수천명이나 더 늘어났다. 특히 탄광들에 청년돌격대력량이 강화되였다. 이들은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돌고헤치며 수천척지하막장에 청춘의 자서전을 새겨가고있다.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에 의해 70일전투목표에 반영된 굴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청년돌격대들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시, 군들에 조직된 돌격대원들의 투쟁열의도 대단하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시, 군 소재지들의 면모가 하루가 다르게 일신되고 협동농장들에 대한 물보장을 원만히 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마련되였다.

어디 그뿐인가.

녀맹돌격대활동 또한 만만치 않다. 도적으로 200여개의 녀맹돌격대가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는데 탄광지구들에만 하여도 20여개의 녀맹돌격대가 있다. 4월 19일현재 전투기간에 탄광들과 각 시, 군들에서 돌격대원들이 막토를 처리하며 대상건설을 비롯하여 어려가지 일을 맡아한 연 인원수는 수백만명에 달한다.

얼마전에 완공된 평성육아원, 애육원에도 녀맹돌격대원들의 뜨거운 애국충정과 헌신의 구슬땀이 짙게 슴배여있다.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충정의 70일전투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 혁명적인 사상으로 론론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자라는 과정이라는것을 뼈에 새아맞았다.

전력, 석탄, 비료, 세멘트생산기지 등에서 지난 시기에 비할바없는 생산장성을 안아왔다. 이것도 좋지만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활력을 더해주기 위한 힘찬 투쟁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일심의 대오로 자라난것이 더없이 기쁜 일이다.

충정의 70일전투승리의 개가를 울릴 날은 멀지 않았다.

도당위원회에서는 70일전투목표들을 점령하는데 맞게 새로운 전투목표를 내세우고 작전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내밀고있다.

석탄전선에서 울리는 승전소식

늘어나는 굴진계획수행단위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도안의 탄전들에서도 련대적혁신이 일어나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적으로 19개의 단위들이 년간 굴진계획을 수행하였다.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 회안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독장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 신리탄광 길영조청년돌격대를 비롯한 청년돌격대들에서 년간 굴진계획을 끝내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이밖에도 조양탄광 1갱 굴진1소대와 청년갱 굴진3소대를 비롯하여 수십개의 굴진소대들이 70일전투목표를 기한전에 완수하였다.

승리의 개가를 울리는 채탄중대들

도안의 수많은 채탄중대들에서 집단주의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돌파하였다.

2.8직동청년탄광 9갱 채탄2중대와 채탄4중대, 청년갱 채탄1중대를 비롯하여 6개의 채탄중대, 철봉탄광 회문갱 채탄1중대, 채탄2중대, 채탄3중대, 덕천탄광 청년갱 채탄1중대와 6갱 채탄2중대, 룡산탄광 5갱 채탄1중대, 채탄2중대, 명학탄광 3갱 채탄6중대, 인로탄광 6갱의 채탄중대, 자강도공급탄광 탄전갱 채탄3중대를 비롯한 수많은 중대들에서 70일전투목표를, 신리탄광 5갱 채탄1중대, 채탄5중대들이 상반년도 석탄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모든 탄광들에 선탄공정을

화력탄보장을 맡은 도안의 탄광들에 선탄공정이 꾸려지고있다. 이 사업은 화력발전소들에 질높은 석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선탄설비들은 매 단위의 특성에 맞게 각이하게 설계되여있다.

현재 끝낸 대상들을 보면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제남탄광, 남양탄광, 덕천탄광, 형봉탄광, 철봉탄광, 서창청년탄광, 덕성탄광과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남덕탄광, 회안탄광, 인로탄광,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득장청년탄광, 룡산탄광, 명학탄광이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조양탄광, 개천탄광에서도 선탄공정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속속 일떠서고있는 벅찬 현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손꼽히는 세멘트생산기지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가 더욱 용을 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승리의 5월,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줄달음쳐 내달리는 순천의 세멘트생산자들의 투쟁기세는 화약에 불이 달린듯싶다.

일전투목표보다 1 200t의 세멘트를 증산!

하루 최고생산실적을 돌파!

70일전투에 들어와 세멘트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속에 기업소적으로 20년이래 처음으로 되는 최고생산실적을 내고있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의 상반년도생산량을 지난 3월 단 20일만에 생산보장한 기세드높이 증산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고있다.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울리는 세멘트폭포의 장쾌한 동음이다.

과학기술의 보검으로 비약의 도약대를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30만산, 10만산발파로 원료걱정을 모르게 되였다는 소식도 좋고 수백℃의 로속에 들어가 한몸이 그대로 불덩이가 되여 소성로의 숨결을 지켜낸 순천용사들의 감동적인 투쟁소식도 좋다. 전투대상목표를 기본적으로 결속하였다는 소식 역시 반갑다.

가슴후련한 소식은 비단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비상히 높이 세웠던 목표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내면서도 과학기술의 보검으로 새로운 비약의 도약대를 마련한것은 전력, 석탄, 비료증산에 합세해나선 순천의 로동계급의 참모습이다.

선탄공정을 놓고보아도 현대적이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원료를 가지고 올해 6월말까지 계획하였던 선탄공정의 현대화를 두달남짓이 앞당겨 끝내여 크링카생산능력을 15% 더 높일수 있게 하였다.

석탄가스화의 실현으로 질좋은 내화벽돌생산에 성공하여 보수주기를 훨씬 늘이고 세멘트생산성을 부쩍 높인것도 성차지 않아 비소성법으로 내화물을 만들어 생산에 도입하였다. 그 경제적효과성은 더할나위없이 크다.

세멘트생산공정을 전반적으로 점토하여 조종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큰 투자없이 세멘트생산성을 한계단 끌어올리고 선진적인 흑연구상주철롤생산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를 발전시켜 강롤의 수명을 거의 10배로 늘이는 희한한 결실을 안아왔다.

이 모든 큼직큼직한 성과들은 과학의 힘, 과학기술의 기관차의 전인력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과학기술중시열풍은 국가과학원의 연구소들과 리과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이웃에 내려와있는 단위들의 수를 헤아려보아도 잘 알수 있다. 열손가락을 다 접아도 모자랄 정도이다.

그러기에 기업소에는 과학자들을 위한 《려관》이 따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멘트증산열풍, 실로 그것은 세멘트생산기지에 휘몰아치는 과학기술중시열풍의 산물이다.

과학기술로 세멘트증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는 태고조전설장들에 활력을 부어주며 전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믿음직한 전구로 위용떨치고있다.

다수확의 확고한 토대 마련

도안의 농장들에서

남흥의 비료생산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의 병기창을 지켜섰다는 비상한 자각안고 질풍쳐 내달리며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비료는 곧 쌀입니다.》

70일전투기간 석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이 조업한이래 최고생산실적이 기록되고있다. 70일전투전에 비해 하루평균 640t, 전투목표에 비해서도 440t의 비료가 증산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가슴벅차오르는 비료증산실적은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만장약한 남흥로동계급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70일전투에 들어선지 얼마 안되여 비료생산의 중요공정에서 탄산가스흡수제를 교체해야 할 정황이 제기되였다. 부득이 생산공정을 세워야 했고 기존판에대로 하면 줄잡아도 교체작업에 한달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교대탕, 시간탕으로 따져가며 증산투쟁을 벌려온 남흥로동계급의 심장은 한달이라는 공백을 허용할수 없었다.

교체작업을 시간이 아니라 분과 초로 쪼개가며 벌리자. 온 련합기업소가 달라붙어 백열전을 벌린 결과 교체작업은 한달이 아니라 단 한주일만에 끝났다. 그 나날 수백㎥에 달하는 수지환을 교체해야 하는 방대한 일감이 나섰지만 련합기업소의 재인 작전, 종업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해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그 기세로 비료생산자들은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미달된 비료생산량을 짧은 시일안에 보충하였다.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차넘치는 일터에서는 비료폭포가 쏟아져내리고있으며 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돌파구가 열리였다.

남흥땅에 비료증산의 동음만이 높은것이 아니다. 전투기간 비료생산능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미 가스발생로 2기를 증설하였고 저장장에 석탄을 쌓는 위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숙성시간을 종전보다 훨씬 늘이였다. 숙성만저장장을 건설하고있는데 이 건설이 끝나면 그 능력은 2~3배 올라가게 된다. 그만큼 원료생산이 늘어나게 되고 비료생산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

지금 온 남흥땅의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곳이 75t순환비등층보이라공사장이다. 가스화공정에서 나오는 폐설물인 재탄을 리용하여 순시로 수천kW의 전기를 생산하고 비료생산공정에 필요한 증기를 팡팡 생산보장하게 될 보이라설치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원래는 올해 6월말까지 2기의 보이라를 설치하는것으로 되여있었으나 남흥사람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증기수요량까지 타산하여 2기가 아니라 3기의 보이라를, 그것도 당 제7차대회전으로 일떠세울 큰 목표를 내세웠다.

담력과 배짱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통이 커도 여간 아니다. 이번에 일떠서는 75t순환비등층보이라는 연소효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설계되여있다.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하자는것이 남흥의 배짱이고 자존심이다.

목표가 비상한것만큼 실천 역시 비상한 속도이다. 종전같으면 국가적인 건설대상에 들어가고 여러개의 전문건설단위가 동원되여야 할 방대한 공사를 련합기업소자체의 힘으로 해제끼고있다. 남들이 쓸수 없다던 기중기를 자체의 힘으로 되살려 20여t에 달하는 설비를 30여m의 높이에 들어올려 설치함으로써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것을 다시한번 웅변으로 확증한 남흥의 로동계급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들은 만난을 돌고헤치며 필요한 설비장치제작과 조립, 제관품들에 대한 작업을 전부 자체로 진행하고있다. 하기에 맨마지막에 시작된 보이라건설도 약동하는 시대, 아침저녁으로 달라지는 시대의 벅찬 숨결과 더불어 얼마 안되는 기간에 다른 보이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기의 자태를 완전히 드러냈다. 이제 머지않아 새로 일떠선 순환비등층보이라들에서 증유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증기를 팡팡 생산하게 되면 남흥의 비료생산능력은 또 한번 껑충 뛰여오르게 된다.

남흥의 비료폭포는 풍요한 가을을 소리쳐부르고있다.

남흥의 비료폭포는 풍요한 가을을 부른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도에서는 다수확시, 군의 본보기를 창조하고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기치를 들었다.

도에서는 벌방지대에서 숙천군을, 중간지대에서 성천군을, 산간지대에서 덕천시를 다수확시, 군으로 선정하였다. 지금 이 시, 군들에서는 올해에 다수확을 내기 위한 한해농사작전안이 치밀하게 작성되였으며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적으로 올곡식농사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3배이상 늘어났다.

벌방지대인 숙천군만 놓고보더라도 밀, 보리농사면적이 종전보다 11배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한개 도의 올곡식농사면적과 맞먹는 것이다. 군의 농장들에서는 례년과 달리 밀, 보리영양단지모를 키워 논과 밭에 옮겨심었다. 숱한 줄이 드는 일이였으나 군에서는 단 한주일동안에 그처럼 많은 단지모를 옮겨심는 성과를 안아왔다.

군에서는 지난 시기의 농사경험과 교훈에 비추어 올해에는 원그루콘모에 의한 벼농사를 모든 농장들의 90%에 달하는 면적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종전과 달리 과학농사문답자료를 더욱 세분화하여 2일에 한번씩 매 농장들에 내려보내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올해농사를 대하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를 어렵지 않게 엿볼수 있다. 문답자료는 새로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서 예견치 않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즉시에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한 해답을 주는것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군에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밑에 씨뿌리는기계 450대를 만든데 이어 콘모를 내는 기계도 제작하였다.

더우기 주목을 끄는것은 농업생산에 통합생산체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벌써 2단계목표가 점령되여 다음단계에 들어섰다. 참으로 과학농사의 전망, 풍요한 가을을 확고히 내다보게 하는 가슴벅찬 현실이다.

산간지대인 덕천시는 또 어떠한가.

시안의 농장들에서는 지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정당 50t의 거름을 내여 전례없는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올해에 밭에서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짓기 위한 작전이 펼쳐졌고 밭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양분석에 기초하여 우량한 새 품종들이 배치되였으며 이랑재배방법에서도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났다.

월지평총화와 10일지평총화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이를 통하여 창조된 경험이 제때에 일반화되고 나라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즉시즉시 세워지고있으며 작업반들사이의 경쟁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성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일념안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방법들을 수많이 탐구하였고 그런 속에 승리의 화살표를 따라 전과령역을 넓히며 영농공정들이 폭폭 추진되고있다.

다수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숙천군과 성천군, 덕천시들에서의 올해농사결실이 참으로 기대된다.

격전장에 새겨진 우리 사회의 참모습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전투전에 비해 순시로 수십만kW 증산!

대고조로 높뛰는 북창의 숨결이다.

무심히 대할수 없다. 그 비약의 숨결속에 전력생산자들만이 아닌 안해들의 애국의 더운 피도 함께 끓고있기때문이다.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기업소전력생산자들의 안해들은 격동된 마음안고 남편들의 일손을 도와 한전호에 섰다.

그 수는 무려 90여명을 헤아린다.

운탄직장에 달려나온 안해들의 수는 20여명이나 된다.

이제 안해들의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수자로 셀수 있으랴.

가정보다 전력을, 국사를 먼저 생각한 우리의 녀성들이다.

석탄은 녀려말라

석탄은 녀려말라!

이것은 탄부들만이 아닌 탄광들과 시, 군들에 조직된 녀맹돌격대원들의 심장의 웨침이다.

탄광들에만 하여도 20여개의 녀맹돌격대가 조직되여있다. 하루동안 동원된 인원수는 1만 2 400여명에 달한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굳이 적지 않는다. 녀맹돌격대원들은 자기들도 《탄부》라고 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느 한 탄광의 청년을 탄부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자신의 곁에 세워주신 숭고한 화폭과 더불어 장군님과 탄부는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맥으로 이어졌다.

그 신성한 이름과 함께 우리는 도안의 녀맹돌격대원들을 오늘의 남강마을녀성들이라고 소리높이 자랑하고싶다.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

평안남도의 수백명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하였다.

대동군과 대흥군의 근 20명의 청년동맹원들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으로, 녕원군의 여러 고급중학교 졸업생 수십명과 순천시 직동고급중학교의 졸업생들은 백두전구와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북창군 룡흥고급중학교를 비롯하여 군안의 여러 고급중학교 졸업생 50여명은 북창전구에 자원진출하였다.

평성교원대학 졸업생 김주향은 은산군 금산고급중학교 교원으로, 평성사범대학 30여명의 졸업생들도 최전연초소들과 양덕군의 산골학교에 교원으로 자원진출하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충정의 70일전투에서 전형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만리마의 위훈으로 빛내여가는 승리자들

영광의 5월에로 폭풍쳐달리며 새 기록, 새 기준을 돌파한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로동계급에 대한 이야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5월에로 온 나라 천만군민이 폭풍쳐달리는 철야진군에서 경공업공장의 하나인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211고지, 굴지의 석탄생산기지, 대동력기지, 영웅청년들의 대부대들과 나란히 충정의 70일전투 전형단위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였다.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3월 10일까지 앞당겨 완수하고 지난 시기의 두달분이 넘는 증산과제를 3월 31일까지 끝내였으며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용틀진!

우리 식의 프로그람과 자전기 자동온도조종장치를 작성, 도입하고 새로운 유약재료를 연구개발하여 600여개의 실안내기를 재생리용할수 있게 하였으며 하루 3랑에 할수 없다던 고치 겉면깎기를 7t으로 장성!

이 경이적인 성과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천리마공장의 빛나는 영예를 만리마시대의 위훈으로 더 높이 떨쳐갈 공장로동계급의 불같은 열의가 비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오리오리 여덟오리의 고치실이 모여 아름다운 비단실을 이루듯이 공장종업원모두가 만리마를 타야 충정의 비단실폭포가 마련된다는것이 이곳 로동계급의 혁명관, 투쟁관, 인생관이다.

이 투철한 집단주의사상과 정신은 근 70년에 달하는 공장력사가 알지 못하는 새 기록, 새 기준을 련이어 돌파하게 한 힘이였다.

만리마기수집단을 위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되여 5일만에 14명의 조사공들이 상반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7일만에는 첫 년간계획완수자가 태여났다. 4월 20일현재 한명의 2년분계획완수자와 25명의 년간계획완수자가 배출되였으며 수많은 상반년계획완수자, 월계획초과완수자들이 기세충천하여 70일전투승리에로 내달리고있다.

결심굳고 달라붙으면 언제든지 탈수 있는 만리마가 항상 자기들곁에 마련되여있었다는 로동자들의 감동깊은 고백은 새로운 천리마시대, 만리마시대 일군들의 사상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전하고있다.

70일전투기록장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사실이 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공장초급당비서 김영미동무는 혁명사적교양실을 찾았다.

금방 40대에 들어선 새 세대 당일군인 그는 초급당비서사업을 시작한지 몇달 안되여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벌림에 대한 당의 호소를 받아안게 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존함을 모신 공장,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발자취가 깃든 공장의 빛나는 력사를 계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가 공장당사업을 맡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웠다.

70일전투의 시작과 더불어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하여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야 할 당사상사업의 많은 일감들가운데서도 공장에 어려있는 백두산3대장군의 령도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쪼이박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이미 머리속에 환한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내용을 다시금 자자구구 뼈에 새겼다.

다음날 아침 공장초급당위원회 계획에 따라 혁명사적교양실을 참관하러 온 조사3직장 종업원들을 낯익은 새 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방금전에 공장정문에서 70일전투의 첫 출근길에 오른 종업원들을 축하하여 꽃목걸이를 걸어주던 초급당비서 김영미동무였다.

수십년을 공장에서 일해오는 오랜 로동자들도, 공장에 온지 얼마 안되는 신입로동자들도 백두산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지만 70일전투의 첫날 초급당비서가 출연한 해설강의에 귀를 기울이는 눈빛과 몰가짐은 달랐다.

나는 평양제사공장이 하루빨리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지닐것을 바란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천리마공장이 되여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을 때에는 천리마공장이 확실히 다르다고, 천리마공장구실을 하였다고 못내 기뻐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눈앞에 어려와 눈굽을 적신 공장종업원들.

어느 직장, 어느 단위도 빠짐없이 진행한 혁명사적교양실참관사업, 공장구내와 생산현장들에 게시한 충정의 70일전투에로 부르는 힘찬 구호들과 표어들, 첫날전투에 떨쳐나선 생산자대중을 고무추동하는 방송선동과 출근길환영, 기동예술선동대의 현장선동과 밀접히 결부시킨 이 강력한 침입식정치사상사업은 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이 시대정신을 안고 날으는 만리마와 더욱 가까와진 훌륭한 계기로 되였다.

만리마는 이렇듯 70일전투의 시작부터 생산자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공장당조직에서 전투의 반나절이 되기도 전에 《하루계획 완수》, 이틀만에는 《한주일생산계획 완수》라는 이동속보판의 짤막하고 힘있는 글발에 기적적인 성과들을 담아 내붙이며 사상사업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종업원들의 심장을 경쟁열, 투쟁열로 이글이글 끓이면지게 할 때 공장지배인 로력영웅 김명환동무는 이미 대보수중에 있던 자동조사기를 비롯한 여러대의 설비들을 빨리 생산에 진입시키기 위한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보름을 이틀로 주름잡았다. 긴급보수에 필요한 수십종에 수백가지나 되는 치차 및 베아링, 축 등 부속자재들을 하루만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체로 깎아 보장한 그 격전속에 실톱는 조사공들보다도 먼저 만리마를 타고 내달린 공무직장 수리공들의 자랑찬 위훈은 오늘도 충정의 70일전투 기록장에 빛난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이틀만에 새것처럼 정비되여 100%만가동, 만부하를 건 생산설비들이야말로 김명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심혈을 다해 마련한 비단실증산의 만리마, 혁신의 만리마였다.

일군이 혀심을 들인것만큼 만리마기수들이 우후죽순처럼 태여나는것 아니랴.

그 만리마들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기적과 위훈의 만리마로 계속 내닫게 하자면 또다시 자기들이 명사부무의 정신으로 만리마를 타야 한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한 공장일군들이다.

로동자들의 생산열의에 설비능력이 따라서지 못하자 전투에서 나타나는 편향과 앞으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료해하고 대책을 세운 어느날 밤 현장에 나갔던 김명환동무는 삭서공들이 번갈아가며 물바케쯔를 들고 뛰여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였다.

지난해 심한 가물로 생산에 쓰이는 물원천이 줄어들었는데 생산이 급격히 올라가다나니 물부족현상이 나타난것이였다.

하루에 한두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하고있었지만 즉시 해당부문 일군들과 련계를 가지고 직접 물탐사사업에 착수하여 풍부한 물원천을 기어이 찾아낸 김명환동무, 물이 쉬임없이 흐르는 삭서가마를 마주하고 그때 일을 추억하며 삭서공들은 누구나 말하였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로동자들의 혁신적성과를 위해 바친 우리 지배인의 진한 땀이라고.

70일전투총화때마다 그날 비단실생산량이 얼마이며 부속품가공은 얼마나 했는가 하는 문제보다 더 엄격히 론의된 문제가 있다.

《오늘 공장종업원들의 식사를 어떻게 보장하였습니까? 식찬은 몇가지나 되주고 중참은 어떻게 보장했습니까?》

공장지배인의 이런 말로 시작된 매일 전투총화는 자연히 합숙과 종업원식당, 청양소사이에 세찬 후방사업경쟁의 불을 지폈다.

경리과에서 콩나물과 두부를 비롯한 부식물을 자체로 생산하여 종업원식당에서 내는 식사의 질과 량을 다같이 올린 사실이 총화모임에서 높이 평가된 날에 합숙책임자 황기복동무는 종업원식당의 국수를 받아다가 자기들이 만든 국수와 대비해보았다.

누가 보지 않는 합숙주방칸에서 더 맛있게 만들자고 다진 결심을 당결정인양 무겁게 여기며 끝끝내 실천한 합숙종업원들의 이야기며 청양소소장 김순녀동무가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간것을 두고 기뻐하였던 청양소종업원들이 잠시후 금직한 부식물보따리와 구럭을 들고 나타난 그를 다시 맞아들인 사연도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경쟁열풍속에 꽃펴난 일화들이다.

철야전투를 벌리는 종업원들을 위한 따뜻한 잠자리, 푸짐한 식탁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일군들의 진정은 종업원들에게 만리마의 지세찬 나래를 달아주었다.

비단실생산에서 품질등급에 따르는 리익금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조사4직장에서는 70일전투기간에 제품의 질을 세계적수준에서 보장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공장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늘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데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질제고목표를 내세운 직장장 주월향동무는 다른 직장들이 뒤를 바싹 붙고 따라오는 형편이였지만 생산일면에만 치중한것이 아니라 기술학습에 힘을 넣었다.

어떻게 하면 이번 전투기간에 세계적수준의 비단실을 생산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리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기술혁신에 앞장선 그의 모범을 직장안의 모든 종업원들이 따라배웠다. 그리하여 전투기간에 세계적수준의 품질등급에 이른 비단실을 기어이 생산해내는 자랑찬 결실을 거두었다.

공장에서는 생산뿐만이 아니라 자전기의 자동온도조종장치의 류류러화를 실현하여 비단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과 재조기들에 설치된 수백개의 마찰치차재료를 수지로 국산화하는 사업에서도, 생산전률에 1만여㎡의 색스페트씌우기와 종업원들의 목욕탕개건에서도 만리마속도로 내달려 계획한 날자보다 모든 사업을 훨씬 앞당겨 끝내였다.

일군들은 만리마의 고삐를 쥔 앞장에서 틀어쥔 기수라고 누구나 말한다.

그러나 일군의 만리마는 자기 하나만이 아닌 공장종업원모두의 만리마속에 있는것이 아닌가. 종업원들 누구나 만리마를 타고 내달릴 때 비로소 일군도 만리마에 오르는것이며 공장은 만리마기수집단으로 시대와 인민앞에 자랑떨치는것이다.

우리와 만난 김명환동무는 말하였다.

《지난날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종업원들을 천리마에 태워주시고 오늘은 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리마에 태워온 나라가 보란듯이 내세워주시였으니 세상에 우리들처럼 행복한 로동계급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부장번영의 만리마에 태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머리는 온 나라 로동계급의 감격의 환호성이 우리의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비단실폭포의 메아리

70일전투가 시작되여 1주일만에 배출된 첫 년간계획완수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하루정량 60추로부터 200추를 혼자서 맡아 하루계획을 300%이상 넘쳐 수행했다는 조사3직장 조사공 박일주동무는 25살의 꽃나이처녀였다.

지난해 11월 제4차 3대혁명붉은기경쟁취운동선구자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더 많은 비단실을 생산할것을 결의한 그는 태양절전으로 2년분계획을 끝내고 또다시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고있었다.

눈감고도 실꿀을 찾는다는 그에게 비단실을 뽑는데서 제일 중요한것이 무엇인가고 물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말하였다.

량심이라고!

누가 보지 못하는 실의 한치한치에 량심을 묻지 못한다면 그 실은 후날 꼭 불합격품을 낳게 된다고 하면서 처녀는 절절히 말하였다.

《우리가 뽑는 실이 어떤 실입니까. 우리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인민들에게 입히고싶어하신 비단옷을 만들 실이 아닙니까!》

그 실 한오리한오리를 위하여 온 공장이 전방이 되고 종업원모두가 철야전투에 나선 결사대원이 되였다.

하루계획을 400%, 500%로 넘쳐 수행하는 조사공들의 이름이 현장속보판을 채울 때 교대가 없어진 작업반들마다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생산실적이 경쟁적으로 뛰여올랐다.

한몸의 불편과 아픔은 있을수 있어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목숨걸고 지켜선 70일전투좌지에 빈자리는 있을수 없었다. 우리가 맡은 일, 우리가 맡은 기대는 있어도 남의 일, 남의 기대란 있을수 없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집단주의위력과 날마다 꽃펴나는 미풍들로 공장의 모든것이 변모되던 그 나날 만리마의 주인은 따로 있지 않았다.

조사2직장 2작업반은 오늘 공장이 자랑하는 전형작업반이다. 그러나 불과 몇달전까지만 하여도 2작업반은 뒤떨어진 작업반이였다. 그런 작업반만도 세번이나 맡아 앞선 집단으로 추켜세운 전금실작업반장이였지만 뒤떨어진 반원들을 때맡아안고 70일전투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어깨는 곱절로 더 무거웠다.

아직은 작업반에 정을 붙이지 못한 반원들을 찾아 남모르는 밤길을 걸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왔던가.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어머니정으로 품어안던 그날들에 전금실동무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준것은 천리마시대 인간개조의 선구자였던 김확실영웅의 모습이였다. 공장일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동무들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동무들은 모두가 일을 잘하여 로동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믿음의 탕부였다.

그날의 믿음의 탕부를 안고 하나가 되여 일떠선 작업반원들을 더욱 분발시킨것은 자기 작업반을 공장의 전형작업반으로 내세워준 당조직의 응심깊은 기대였다.

평양시적으로 제일먼저 천리마공장의 영예를 지닌 그날에는 천리마작업반이였다면 오늘의 만리마시대에는 만리마작업반이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남다른 각오가 끝남다른 실천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였다.

70일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작업이 끝날무렵 그의 눈길은 또다시 자기 일만 끝내고 퇴근준비를 서두르는 한 조사공에게 멎어섰다. 그 이튿날 하루작업의 제일 힘겨운 시간에 전금실동무는 그와 나란히 기대에 섰다.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가는 실들이 빔구간에서 한오리로 엮어져 얼때에 감기는 모습을 새삼스럽게 바라보던 전금실동무는 그 조사공처녀에게 이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때로 나에겐 빔구간에서 합쳐지는 저 하나하나의 고치실들이 마치도 우리 작업반사람들의 모습처럼 생각되군 해요. 조사공, 삭서공, 정비공…》

삭서공, 정비공, 감지공… 그들 모두는 다 조사공을 위해 뛰는 사람들이다. 조사공의 실적은 눈에 띄여도 그들의 땀은 그 실적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다. 작업반의 생산실적은 바로 빔구간에서 합쳐지는 여러 고치실들과도 같은 조사공만이 아닌 정비공, 삭서공, 감지공… 그 모든 사람들의 슬결이 하나로 되여야 높아질수 있는것이였다.

《나는 바로 그 빔구간에 동무도 있고 동무를 도와 말없이 연장작업을 하는 정비공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비단실이 오리오리 엮어져 비단천이 되듯이 우리 매 사람, 매 작업반, 매 직장이 다 한마음으로 만리마를 타야 비단실폭포가 쏟아지지 않겠나요.》

작업반장의 이야기는 길지 않았지만 조사공처녀가 받은 충격은 컸다. 자기밖에 몰랐던 그는 후날 손꼽히는 공장의 혁신자가 되였다.

일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들떠서 살던 작업반원들도 우리가 하룰을 한번 하는 새면 다른 작업반에 뒤떨어진다며 일터를 뜨지 못하는 이악쟁이들이 되였고 뒤떨어진 다른 작업반일까지도 솔선 도와주는 미담의 주인공들이 되였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실오리를 바늘귀보다 더 작은 점서기구멍에 수천번씩 꿰여주며 눈 옆으로 걸으면서 순회길을 달리는 조사공들에게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서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들에게 제일 그리운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잠도 아니였다. 편안하게 앉아서 휴식하는것은 더욱 아니였다.

《우리에게 제일 그리운것은 증기가 잘 오고 물이 잘 나오는것입니다.》

가슴을 쟁-울리는 정밀한 조사공처녀의 대답을 곱씹어 외워보는 우리의 귀전에는 1970년대 70일전투때 조선로동당원이 되였다는 70대의 공훈조사공 최경순녀성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우리 원수님께 기쁨드릴 그날까지 일을 많이 하는것이 내 소원입니다.》

지난 세기 70일전투의 벅찬 날과 날들을 옛말처럼 들려주며 오늘도 70일전투의 새 세대 참전자들과 곡갈이 뛰고 호흡하는 그를 볼 때마다 청년들은 말하군 한다. 공훈조사공할머니만 봐도 힘이 난다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던 자랑스러운 전세대의 투쟁정신과 혁명열은 이렇게 만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는 새 세대들의 피줄기속에 맥맥히 흘러 승리의 결승선을 향한 새 기적, 새 기록은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그 결승선에로 한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라고 떠밀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순결한 량심과 눈물겨운 지성, 애국의 더운 땀을 바쳤던가.

70일전투기간 공장종업원모두가 혁신자였다면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그 혁신의 밑거름이였고 그들과 곡갈이 만리마를 탄 사람들이였다.

녀성종업원들이 각별한 애정담아 부르고있는 《70일탁아소》, 《70일유치원》에서는 부모도 미처 몰랐던 병까지도 깨끗이 고친 어린이들이 더 밝고 튼튼하게 자라났으며 종업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치료도 해주고 물심방면의 지원사업을 해준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은 종업원들의 친정어머니가 되였다. 비단실을 더 많이 뽑아달라고 친혈육의 정으로 밝은 눈을 안겨준 평양안경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제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려준 방송원들과 교원들, 배우들, 깊은 밤 종업원들의 퇴근을 보장하겠다고 달려왔던 어느 한 차사업소의 승용차운전사들은 얼마나 고마왔고 70일전투기간 공장종업원들과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일도 하고 많은 후방물자도 지원한 가두녀성들의 소행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웠던가. …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70일전투기록장을 번지면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였다.

년간계획완수자 25명중에 대부분이 청년동맹원이였는데 그들은 다 20대 꽃나이처녀들이였다.

그중의 한명인 조사3직장 조사공 김정향동무는 7년전 공장에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장군님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남다른 행복을 지닌 처녀이다.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2차례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그는 올해의 뜻깊은 70일전투기간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였다.

입당하던 날 눈물로 두볼을 적신것은 정향이만이였던가.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비단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고,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들이 비단옷을 입을 때 자신께서도 야전복을 벗겠다고 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의 그날의 그 음성이 귀전에 메아리쳐와서, 산같이 비단실을 생산했건만 장군님께 변변한 솜옷 한벌 해드리지 못했다고 목이 꺽꺽 메여 흐느끼는 정향이와 함께 세포당원들모두가 울었다.

진정 온 나라 인민들을 우리 수령님들의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안을 비단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일년사계절 비단실을 뽑는 미더운 청년전위들 아니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우리 장군님의 그 색바랜 야전솜옷이 심장처럼 간직되여있었다.

그래서 날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는 꿈을 꾼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70일전투의 하루하루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의 선봉에 서는 길이였고 우리 원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길이였다.

공민이 되여 첫걸음으로 70일전투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조사3직장 조사공 김수영동무는 자기의 오동오동한 손을 안타까이 쓸며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다른 조사공들은 다 손가락이 맵시나서 일을 번개같이 해제끼는데 내 손가락은 왜 이렇게 통통한지 실꿀을 찾기가 힘들어서 막 속상하다고.

눈물이 나도록 기특하고 돌보이는 18살 처녀에게 우리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일하는 손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라고, 너의 그 마음이면 머지않아 너도 네가 부럽게 바라보던 그 혁신자들과 나란히, 당당히 김정숙어머님께서 애지중지하신 그 보배손으로 비단실폭포를 받들어올리게 될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사적이 곳곳마다 깃들어있고 길일성훈장과 위대한 수령님의 표창장을 20여차례나 받은 공장은 지난 4월 18일 창립 69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비단실폭포로 받들기 위한 70일전투의 기적과 위훈으로 69번째 년륜을 자랑스럽게 아로새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며 만리마의 고삐를 계속 힘있게 틀어잡고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깡그리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체취와 사랑에 혈맥을 잇고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억세게 박차며 승리떨쳐온 천리마공장, 그 영예를 간직한 만리마의 기수들은 머지않아 이 땅우에 비단실폭포를 장엄하게 펼칠것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본사기자 조향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9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학월한 령도와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수리아대사관 성원들 평천혁명사적지 참관

수리아독립 70돐에 즈음하여 딸람 쑬레이만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9일 평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해방된 조국땅에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자립적국방공업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선군총대의 고향인 평천혁명사적지에 아로새겨진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진문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력사적인 곳을 참관하면서 국방공업의 터전을 마련하신 김일성주석각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가슴깊이 간직하였다.

강력한 총대만이 나라의 자주권을 담보한다는 김일성주석각하의 신념에 따라 조선은 군수공업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수리아는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온갖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자기의 존엄과 긍지, 령토를 수호하기 위한 길에서 조선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서있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발

리수용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지속개발목표달성에 관한 고위급토론회와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빠리협정서명식에 참가하기 위해 19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명국외무성 부상이 전송하였다.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안광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년전위》신문창간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청년전위》신문창간 70돐 기념보고회가 1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신문사일군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시안의 청년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청년전위신문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최룡해동지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영예의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청년전위》신문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간되고 청년교양의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된 청년동맹기관지이며 당의 청년중시사상과 정치를 대변하는 권위있는 신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해방후 청년동맹창립대회에서 청년신문을 내올데 대하여 몸소 말기하시고 준비사업을 지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4월 20일 신문창간을 축하하여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면서 청년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신문으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3차에나 신문사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출판보도전선의 위력한 전초기지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새해공동사설을 당보, 군보와 함께 청년보의 이름으로 내보내도록 하여주시고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청년전위들의 대부대를 키워내는 힘있는 교양자, 전군의 나팔수가 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당중앙은 청년전위신문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신문부수를 늘이며 출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혁명적조치를 취하여주었으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가는데서 신문이 당정책의 대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었다.

청년전위신문사는 신문창간을 선포한 때로부터 지난 70년동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자기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책임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청년전위신문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은 정책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청년들의 특성과 기호에 맞게 신문편집과 발행을 참신하게, 기동적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으며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 시대와 혁명의 꽃으로 준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청년전위신문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열렬한 충정을 지니고 신문을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 최순철의 보고에 이어 부주필 전명철, 부장 정종혁, 기자 전명희가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창간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고 축하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모든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며 백두산청년대강국건설에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과 미풍들, 선군청년문화가 창조되고 있는 전투장마다에서 취재집필과 편집활동을 과감히 벌림으로써 70일전투의 최후돌격전에 떨쳐나선 청년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안고 당 제7차대회를 떳떳하게 맞이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 《청년전위》신문이 우리 당의 청년중시사상의 철저한 대변자, 청년맹장들의 훌륭한 방조자, 조언자, 참다운 길동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이란군대절에 즈음하여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 연회 마련

이란군대절에 즈음하여 바흐람 간바리 셀라바씨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이 19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노광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만쑤르 차보쉬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하싼 루하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귀국

더모트 하드슨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이 1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독창가일행 귀국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독창가일행이 1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군령장을 모시여 백두산대국의 앞날 찬란하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불패의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쳐갈기며 승리의 5월을 향하여 질풍노도처 나아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적 국방력강화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성공은 미제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횡에 대처하여 핵공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려는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으로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에 대한 또 하나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이 시험에서의 대성공으로 우리 공화국은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핵공격을 가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핵에는 핵으로 맞서싸울수 있는 보다 위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였다.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하는 우리의 주체적핵무력건설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눈부신 사변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강철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군술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틀림없이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력사의 흐름은 위인의 시간표에 따라 전진한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과 존엄을 만방에 떨치며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고있다. 그것은 절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백승의 지략과 전법을 펼치시는 탁월한 선군령장이시다.

예로부터 군사를 쓸줄 아는 장수는 총소리보다 북소리를 먼저 울린다고 했다.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비범한 지략과 령군술로 언제나 대승리만을 이룩해오시였다.

오늘도 우리는 교전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해 8월의 사태를 잊지 않고있다. 당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은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악명높은 《을지 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병력과 최신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면서 극도의 핵전쟁위기를 조성하였다. 각종 도발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던 괴뢰군부깡패들은 나중에는 《북포탄발사》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우리의 신성한 령토를 향하여 수십발의 포탄을 란사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정세는 순식간에 위기일발의 폭발국면에로 치달았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혁명적원칙,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적들의 무모한 정치군사적도발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시였다.

즉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가 긴급소집되고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시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 하달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강위력한 타격수단들이 도발과 침략의 본거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준경안에 집어넣고 공격진지를 차지하였다.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대응에 질겁한 적들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을 예고하는 상상밖의 초강경조치》라고 비명을 지르며 황황히 꼬리를 사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철의 담력과 배짱, 결단성있는 조치가 있었기에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되고 미제와 괴뢰패당이 몰아오던 전쟁의 위기가 가셔지게 되였다.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 제국주의의 침략적도전을 영원히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철옹성같이 수호하며 하루빨리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이며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의 력사적인 보고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것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제시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적핵억제력은 반공화국적 대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전을 무자비하게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며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힘이다.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조국통일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내외원쑤들의 비렬한 반공화국고립압살기도와 반통일대결책동은 걸음마다 분쇄되고있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을 비롯하여 우리가 련이어 이룩한 주체적핵무력건설에서의 경이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5천년민족사의 특대사변이다.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의 대성공으로 우리는 미국본토를 비롯한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악의 소굴이든 우리의 타격권안에 두고 이 행성에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게 재가루로 만들어놓을수 있게 되였다.

정녕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백두산대국의 군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온 겨레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강성국가로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심철영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재중동포들 뜻깊게 경축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일 중국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행사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를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대표들, 동포예술인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일군들,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나라 지사성원들, 길림시에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어진 프랑카드를 든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참가자들은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태양절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최수봉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대하가 온 세계에 뜨겁게 굽이치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부르는 만민칭송의 송가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체 재중조선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비범한 사상과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백두산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어둠만 삼천리강산에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결심을 품으시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수십성상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영웅조선으로 빛내여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으로 짓부셔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통일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해 그는 호소하였다.

그는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백두산대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전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한편 10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에서, 13일 료녕지구협회에서, 13일 중남지구협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전지채택모임,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인터네트홈페지 《구국전선》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4.19인민봉기 56돐에 즈음하여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4월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반역무리들에게 력사의 준엄한 철추를 내리자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체 국민들이여!

오늘 우리 민중은 20대 《총선》에서 친미보수세력의 아성인 《새누리당》에 준엄한 심판을 가한 기개드높이 4.19민중항쟁 56주기를 맞이하고있다.

민주와 파쑈, 진보와 보수, 통일과 분렬세력사이의 치렬한 대결장이였던 이번 《총선》에서 사악한 반역과 독재의 무리들에게 대참패를 안긴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중이 이룩한 또 하나의 소중한 결실이다.

우리 민중은 이번 선거에서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파쑈폭압과 반민중적악정을 일삼는 반역패당에게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강한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민심을 등지고 대세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력사의 준엄한 징벌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현대판 《유신》 파쑈집단인 박근혜패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정의와 진리, 진보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시위한것으로 하여 항쟁의 날인 4.19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이 땅이 항거의 거대한 불도가니로 되여 리승만친미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민중항쟁은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생활을 기어코 안아오려는 전국민적의지의 분출이였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백은 정치 갈아엎자!》, 《미국은 물러가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웨치던 항쟁용사들의 피타는 절규가 들려오고 거리를 피로 물들이며 미국과 친미독재통치를 반대하여 노도처럼 전진하던 항쟁대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온다.

반미반독재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4.19민중항쟁은 자주와 민주, 통일된 세상에서 살려는 국민의 지향과 의지는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대장거였다.

그러나 4.19용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새 정치, 새 생활, 새 제도에 대한 념원은 5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4.19의 열매를 총칼로 찬탈한 박정희군부파쑈집단의 속성과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패당은 이 땅에 《유신》독재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해 최후발악하고있다.

온갖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권력을 가로챈 박근혜패당은 집권하자마자 4.19의 고귀한 정신을 모독하고 군부독재자들을 무색케하는 희대의 폭압광풍을 일으켜 이 땅을 민주, 민권의 페허로 전락시켰다.

제2의 《유신》독재자인 박근혜패당의 야만적인 폭정에 의해 합법적인 정당, 언론들이 강제해산, 폐간당하고 평화와 통일,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철창속으로 끌려가고 생존권을 요구하던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등 이 땅은 파쑈암흑시대로 되돌아갔다.

애초부터 경제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패당의 반민중적악정으로 하여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 땅은 세상을 하직하는 자살자가 속출하여 세계최악의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제제통일》에 환장하여 남북관계의 모든 통로들을 차단하고 그 마지막명줄인 개성공업지구까지 폐쇄시킨 박근혜역적무리의 전대미문의 반통일죄악에 온 겨레가 치를 떨고있다.

박근혜호전집단의 북침전쟁책동으로 이 땅에는 또 얼마나 험악한 정세가 조성되여 우리 민중이 전쟁의 공포와 불안속에서 가슴조이며 살고있는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집권패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의 핵전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이고 사상최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려놓으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몰아넣고있다.

집권 3년간 반민중적악정과 동족대결광란으로 전대미문의 죄악을 저지른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적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그 증오와 저주가 폭발하여 《새누리당》에 대참패를 안긴것이 바로 20대 《총선》이다.

보수집권패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상투적인 《북풍》조작 등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면할수 없었다.

반역무리들에게 력사의 심판을 내린 그 단호한 기상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리승만친미독재의 명줄을 끊어버린 4.19정신이 오늘도 살아뛰고있다는것을 웅변해주고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은 이번 선거결과에 도취하거나 순간도 마음의 랑개를 늦추어서는 안된다.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렇게 하나 제1당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선거결과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복당》놀음을 벌리는 등 반역통치의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극악무도하고 부패무능한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앞길에는 무수한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현 시국은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박근혜집단의 반민족적, 반민중적죄악을 총결산하고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국민들이여!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우리 민중의 투쟁은 중단함이 없이 더욱 줄기차게 이어져야 한다는것이 4.19항쟁용사들이 남긴 피의 교훈이다.

오만과 독선, 불통과 무능의 대명사인 박근혜식통치의 반동적체질과 매국배족적성격은 절대로 변할수 없다.

결사의 투쟁으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 놓고 친미독재 《정권》을 거꾸러뜨린 4월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박근혜집권세력의 반역통치에 결정적타격을 가하자!

민주를 유린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박근혜집권세력의 죄악을 총결산하자!

친미친일무리인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사대매국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지금 박근혜패당은 《북핵포기》를 운운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북침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미국에 추종한 박근혜집단의 동족대결광란과 북침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반전평화옹호투쟁으로 박근혜집권패당의 무모한 북침전쟁야욕을 분살라버리자!

박근혜보수집권세력을 배후조종하고있는 미국의 저주로운 식민지지배와 간섭을 결정적으로 끝장내기 위한 범국민적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자!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민중의 새 정치, 새 생활을 가로막고있는 원흉인 미국을 이 땅에서 내쫓자!

반통일대결세력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 최악의 상태에 처한 남북관계를 구원하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자주통일의 기치밑에 박근혜집권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결사반대해나서자!

력사적인 공동선언들을 사문화시킨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심판하여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자!

남북관계를 통강낸 박근혜패당을 몰아내고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단결은 민심을 등진 반역무리들을 매장하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이다.

지역과 소속,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일치단결로 국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힘있게 과시하자!

4.19의 나날 파쑈의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친미독재타도》를 웨치던 용사들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정의와 애국에 불타는 애국청년들은 4월항쟁용사들의 뜻을 이어 자주, 민주, 통일투쟁의 선봉에 서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민생과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극심한 생활고를 강요한 현 집권패당을 반대하여 총궐기하자!

민주개혁세력들은 힘을 합쳐 박근혜집단의 독단과 독주를 분쇄하고 보수패당의 절락과 장기집권야망에 철추를 내리자!

승리는 굴함없는 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민중에게 있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4.19항쟁용사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민족반역무리들을 매장하고 민중이 주인된 새 정치, 새 생활, 민족이 하나된 통일조국을 반드시 안아오자!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2016년 4월 19일 서 울

태양절경축 일조우호모임 진행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태양절경축 일조우호모임이 16일 일본 도꾜에 있는 총련 조선대학교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히모리 후미히로, 이전 일본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싱의 정무비서 가네마루 싱고와 《도꾜—평양 무지개다리》 대표 에구찌 세이자부로를 비롯한 조선인민과의 친선단체 인사들 그리고 일본과 여러 나라 언론계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모임에서는 히모리 후미히로 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4돐에 즈음하여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주석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제1비서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그는 표명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책동과 고립압살책동을 반대하여 련대성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온 주체의 해외교포대학인 조선대학교의 60년의 자랑찬 력사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이어 연회가 있었다.

장병태학장과 각계 인사들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총련의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과 조선대학교의 위용에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민족교육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고 조일관계개선과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운동을 보다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선대학교의 어머꼿을 참관하였다.

북남선언리행을 공약할것을 요구

남조선의 6.15, 10.4국민련대 상임대표가 11일 《국회》의원 후보들이 북남선언리행을 공약할것을 주장하여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정치권이 조선반도에서 고조되는 핵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 하나, 파국에 처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대로 나간다면 민중에게는 절망만이 남게 될것이라고 호소문은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면 외세의 전쟁키도를 막을수 있고 민족의 생명을 지킬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되살리는 길이 민생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에 대해 공약할것을 호소문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성한 교단을 란도질하는 파쑈광

지금 박근혜역적패당이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며 그 구현을 위해 앞장에서 투쟁하는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괴뢰교육부는 전교조가 《세월》호침몰사건 2년을 계기로 제작한 참고서적에 집권자를 《피물로 암시한 내용》과 《세월》호침몰사건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이 포함되였다는 언터거리를 잡아 학교들에 그의 사용을 금지할것을 내리먹이는 망동을 부렸다. 그런가하면 아이들에게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진실을 가르치려는 이 단체의 활동을 문제시하면서 《엄정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교육부패거리들은 나중에는 전교조의 은행거래를 차단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을 무조건 해고시키라고 강박하는 등 별의별 유치하고 졸렬한 수법까지 쓰고있다.

괴뢰당국의 이러한 련속적인 폭압조치들은 사실상 전교조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극악한 파쑈적폭거이다.

박근혜역적패당이 집권 첫해부터 진보적인 교원들의 모임인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 《내부의 적》이라는 감투를 씌워 짐은명단에 올려놓고 탄압을 가하다 못해 지난 1월에는 법원을 내세워 이 단체의 합법적지위를 끝끝내 빼앗고 법외로조로 만들어버린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지금 감행되고있는 전교조에 대한 괴뢰당국의 야만적인 탄압소동도 그 연장일따름이다.

백주에 합법적인 정당을 《종북정당》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내란음모죄》에 걸어 감옥에 처넣었으며 진보적언론인 《자주민보》를 강제폐간시킨것 등 지난 3년동안 파쑈폭압을 만능의 통치수단으로 삼아온 박근혜역도의 독재자로서의 기질을 놓고볼 때 전교조에 대한 탄압소동의 끝이 어디인가 하는것을 가히 짐작할수 있다. 괴뢰들은 전교조를 통합진보당처럼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이번에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앞장에 나서고있는 괴뢰교육부는 박근혜역도의 심복졸개들로 꾸려진 사부입은 파쑈깡패들의 소굴이다. 《유신》독재자의 반민족적인 친일행적, 파쑈독재통치를 시술한 력사교과서리용을 금지시키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박근혜역도의 력사교과서 《국정화》놀음의 주역을 놀고있는것도 바로 괴뢰교육부패거리들이다. 괴뢰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박해와 탄압에 열을 올리는것은 이 단체가 청와대의 력사쿠데타소동에 맞서 정의와 량심의 교단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있기때문이다. 전교조를 완전히 해체해버림으로써 저들이 저지른 반인민적범죄행위들의 진상을 영원히 흑막속에 묻어버리며 정의와 애국을 짱그리 말살해버리자는것이 박근혜역적패당의 흉악한 속심이다.

전교조에 대한 괴뢰패당의 악랄한 탄압행위는 신통히 1960년대에 학원의 민주화를 총칼로 짓밟고 신성한 교정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변시켰던 박정희군사깡패의 몸서리치는 죄행을 그대로 련상시킨다.

세상에 삐여져나올 때부터 《유신》독재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넘겨받아 태운것이라고는 독재통치, 폭군적기질밖에 없고 한장 피어나는 꽃망울같은 아이들을 짐푸른 바다속에 수장시키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박근혜역도와 같은 랭혈한이 청와대안방에 들고앉아 소름끼치는 독기를 풍기고있는데 어떻게 남조선인민들에게 편안한 날이 있을수 있겠는가.

인간의 초보적인 면모도 갖추지 못한 반편짜리 인생을 조금이라도 연명해보겠다고 파쑈독재의 칼춤을 추며 신성한 교단까지 사정없이 란도질하는 이런 치마두른 폭군이 살판치며 날뛸수록 남조선사회가 정의와 애국이 짱그리 말살된 민주의 동토대, 인권의 참혹한 무덤으로 더욱 전락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물은 한없이 흐르고 피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당한 대참패는 곧 박근혜역도에 대한 인민들의 사무친 원한과 분노심이 폭발한 결과이다. 역적패당의 참패는 《유신》독재를 부활시키며 사회를 파쑈의 암흑천지로 만든 청와대악녀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파쑈의 칼부림은 결코 만능의 통치수단이 아니다. 제아무리 포악한 독재자라 해도 정의를 지향하며 반역통치에 맞서싸우는 인민대중의 힘을 당해낼수 없다.

박근혜역도와 같은 인간오작품, 민족의 우환거리가 처박힐 곳은 오직 력사의 무덤밖에 없다.

박 철 준

《세월》호참사를 잊지 말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자

남조선 각지에서 범국민추모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세월》호참사 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6일 남조선 각지에서 범국민추모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되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1만 2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파쑈당국이 《세월》호참사 2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도 없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하고있는데 대해 격분에 넘쳐 단죄하였다.

이 참사에는 피을만 추구하는 기업환경과 민중이 위험에 빠져도 제대로 구원하지 않는 당국의 고질적병폐가 압축되여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세월》호문제는 바로 우리자신의 문제, 민중모두의 문제라고 말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지금 억수로 퍼붓고있는 비는 곧 닥쳐올 새로운 시련을 예고하고있다고 하면서 모든 민중이 힘을 모아 힘차게 싸워 《세월》호참사와 같은 비극을 끝장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민중들이 《세월》호참사를 잊지 말고 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에 마지막까지 함께 나서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그들은 특별법개정과 특별검사제실시, 온전한 선체인양 등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힐것을 약속한 《국회》의원들은 자기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것만큼 참사피해자들의 명혼을 지키는데 열성을 다하라고 요구하였다.

집회에서는 4.16련대의 인권선언이 발표되였다.

단체는 인권선언을 통해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찾기 위한 실천투쟁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중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권력에 맞서 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주저함이 없이 계속 높여나갈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특별검사제 실시하라!》, 《특별법 개정하라!》, 《특별조사위원회 종료협박 말라!》 등의 구호들을 웨쳤다.

이날 전라남도 진도의 팽목항과 경기도 안산의 합동분향소 등지에서도 참사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괴뢰당국의 반인륜적만행을 단죄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남조선의 민주로총소속 로동자들 투쟁

남조선의 민주로총소속 로동자들이 6일 서울에 있는 괴뢰정부청사앞에서 《2016 민주로총 최저임금투쟁 선포식》을 가지였다.

선포식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고 절규하였다.

민주로총의 최저임금인상투쟁은 로동자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권실현투쟁이며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선포식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서명운동, 총파업, 집회 등 다양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현 《정부》가 로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요구를 받아들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이어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정부》가 《최저임금대폭인상》을 운운하며 로동자들을 기만하고는 불과 몇달만에 뒤집어버리던 때를 잊을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결의문은 소득불평등해소,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최저임금인상투쟁에 전체 로동자들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화파괴와 긴장격화의 장본인, 범죄자로서의 미국의 추악한 정체

미국은 사태를 전쟁국면에로 치닫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마련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초강경대응조치들을 련속적으로 취했다.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핵탄두의 실물공개, 탄도로케트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 등 우리의 련이은 행동조치들과 핵선제타격의지성명, 핵탄두폭발시험과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선언은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의 위력과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짱의 일대 과시로 된다.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적들은 아우성치며 전률하고 벗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 정치, 경제적압박,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이 오히려 저들의 침략적본성만 드러내게 되자 당황망조한 미국은 어떻게 하나 사태를 역전시켜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대응조치들을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우리때문에 조선반도정세가 긴장되고있는것처럼 혹백을 전도하고있다. 우리의 정의의 대응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무성, 국방성 대변인들이 줄줄이 나서서 무작정 《도발적인 행동》,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며 소동을 피우고있다. 그야말로 비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다.

아무리 검은것도 흰것이라고 억지를 쓰기 좋아하는 미국이라고 해도 침략자와 평화수호자를 뒤바꾸어놓을수 없다. 적들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제편에서 우리를 《도발자》, 《범죄자》로 몰아붙이려고 여론을 어지럽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지난 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취한 평화애호정책은 국제사회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있다.

평화애호국가인 우리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꾸준히 인내성있게 노력하여왔다.

정전직후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일일이 랠거하자면 끝이 없다. 1970년대에 조선과 미국사이의 회담을, 1980년대에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당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1990년대에는 미국의 정전기구파괴책동으로 조성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조미군부협상제안을 내놓았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왔다.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창설안을,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밝히하였다.

최근년간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핵공격위협으로까지 이어지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사존망이 엄중한 위협에 처하여있는것과 관련하여 중대제안을 거듭 내놓았다.

《년례적》이며 《망어적》이라는 미명하에 감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는 정책적절단을 내려야 한다는것과 남조선당국이 더이상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무모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데 대하여 알아들을만큼 충고도 주고 경고도 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 성근하게 나왔더라면 조선반도정세가 훨씬 완화되였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평화노력에 매번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대답해나섰다. 우리의 평화노력을 그 무슨 《위장평화공세》로, 《선건효과》를 노린것으로 몰아붙이며 긴장상태에 더욱 부채질하였다.

력사적으로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려왔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벌써 우리에 대한 핵공격을 획책하였으며 세세기초에는 부시행정부가 비핵국가였던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공식 지정하였다. 오바마행정부 역시 우리를 핵불사용대상국명단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핵전쟁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핵전쟁미치광이들의 정체를 더욱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해마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될 때마다 조선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군 하였다는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인정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력사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년년이 격화시켜온 북침도발력사, 핵전쟁도발력사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최극단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게 된 원인도 바로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고 작성한 작전계획까지 뻐젓이 공개하며 광란적으로 벌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에 있다.

미국이 이번에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도발적성격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것이다.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30여만의 대병력과 《B-52》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핵항공모함타격집단들을 총동원하여 《북종심내륙진공작전》과 《평양점령작전》 등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는 실동훈련은 세상사람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있지만 남조선에서처럼 륙, 해, 공군 및 싸이버군무력과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여 벌어지는 곳은 없다. 합동군사연습의 전파정이 주권국가의 수도를 점령하려는 작전계획에 따라 벌어지는 곳도 없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종전의 《년례적》이며 《망어적》이라는 간판마저 줴버리고 우리의 최고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까지 벌려놓는 등 무모한 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는데 있다.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내놓고 떠들며 날뛰는 미치광이는 유독 미국과 괴뢰역적들뿐이다.

우리와 미국은 전쟁상태나 다름없는 교전관계에 있다. 교전관계에 있는 적대국이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총동원하여 눈앞에서 불의적인 기습타격훈련을 벌리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참수작전》이라는것을 실전에 옮기려 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 자제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원쑤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어제보려 하는데 대하여 천만군민이 어찌 분노의 치를 떨지 않을수 있겠는가.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인 미국이 《힘의 만능》을 떠들며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키며 덮칠 기회만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사소한 기미라도 보이는 경우 우리 군대가 단호한 핵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것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백한 자위권행사이다.

미국은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기 전에 비핵국가가 왜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게 되였는가 하는 대답을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찾는것이 좋을것이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는 미국의 강도적인 반공화국압살정책과 핵전쟁책동이 빚어낸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것도, 오늘에 와서 선제공격적인 대응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전적으로 미국때문이다.

까리브해위기때 제땅 코앞에 미싸일들이 배비되는데 덴겁하여 소란을 피운 미국이 남의 나라 땅에 핵전쟁장비들을 끌고와 불장난을 하면서 그에 대응한 조치들을 《도발》이라고 하는것이야말로 억지중의 생억지이다.

우리에게는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이 물이나 공기처럼 귀중하다.

우리 인민이 하루빨리 건설하려는 강성국가는 평화적환경을 절실히 요구한다. 하루를 열흘, 1년을 10년맞잡이로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 사회주의문명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절실히 필요한것은 평화적환경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구걸로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위한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것도 그때문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이 아니라 긴장격화를 바라고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은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의 근원이다.

세계제패를 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군사적존재를 계속 유지강화하는것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외전략의 핵심으로 되고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사활적인 곳으로 되고있다. 이 지역에서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관단이다.

미국에 도전할수 있는 지역대국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는 사실상 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있는것은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자는것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이 마련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증강할 구실은 물론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을 벌릴 구실마저 없어지기때문이다. 정세분석가들이 미국이 고의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려 하고있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여 정세를 항시적으로 격화시키려 하고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위해서라면 억지로라도 구실을 만들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파괴하는것도 서슴지 않는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침략자, 도발자로서의 자기의 정체를 절대로 감출수 없다.

조선반도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횡설수설하여도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미국의 정체를 낱낱이 발가놓고있다. 적들이 도발강도를 높이는것만큼 그를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의 초강경대응조치도 그만큼 강화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의 최고리익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드는 경우 즉시에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것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을 근원적으로 깨끗이 제거해버릴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경고한대로 적들의 간탐을 서슬째 하는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련속 취해나가게 될것이다.

리 현 도

평화의 암적존재 미군은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는 미국의 침략적정체가 또다시 드러났다.

최근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에게 매해 미군유지와 새 미군사기지건설에 필요한 수백억US$의 비용을 틀림없이 우겨대고있다.

남조선은 2017년까지 미군이 주둔할 평택기지확장에 필요한 자금중 93%를, 일본은 이와국니미해병대공군기지건설자금중 94%를, 오끼나와 후텐마기지이전비용 120억US$ 전액을 부담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를 주요발판으로, 판건적지대로 보고있다. 조선반도를 틀어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위한 전환적국면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선제공격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은 그러한 목적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만을 노린것이 아니다. 해마다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작전반경이 조선반도를 훨씬 벗어나는 각종 최신전쟁장비들을 들이밀어 남조선강점 미군을 여기에 숙달시키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기동타격력과 원거리작전능력을 강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주변나라들이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이 벌어질 때마다 불안과 우려를 표시하며 경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미국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실현불가능한것으로 되고있다. 동북아시아의 여러 대국들의 경제적, 군사적영향력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지배권은 좁아지고있다. 이에 미국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지난 기간 침략과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한 후과로 늘며 겨자먹기식으로 군비를 축감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오늘의 미국의 처지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 많은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 군사적우세를 차지하여 중국과 로씨야를 압박해보자고 해도 그럴 능력이 없다.

자국의 쇠퇴몰락을 막을 방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있는 미국은 동맹자들의 힘이라도 빌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비극은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이 저들을 어떤 불행한 처지에 빠져들게 하겠는지 재여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고있는데 있다.

재침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자국이 팽전시기에는 태평양에서 쏘련잠수함들을 막는 서방의 전초선이였다면 오늘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주의를 막는 지역의 보루라고 웨치고있다. 일본은 《자위대》가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그를 방위할수 있게 한다는 안전보장관련법을 시행시킨 상태에 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이 시각에도 동족을 핵전쟁참화속에 밀어넣기 위한 불장난에 미쳐날뛰고있다.

미국과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으로 하여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군비경쟁의 검은 파도가 밀려들고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심히 위협당하고있으며 지역은 날이 갈수록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전변되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파괴의 주범도,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유일초대국》지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부지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전쟁하수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정도가 되였으니 그것은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미국의 마지막몸부림이라는것을 반증해줄뿐이다. 파멸의 구렁텅이로 줄달음치는 미국에 매달려 잔명을 부지해보려 하는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이 가긍하기 그지없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에 두고있는 침략적인 군사기지들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무력을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암적존재인 남조선과 일본주둔 미군은 지체없이 철수해야 한다.

미국이 만약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침략자들은 파멸을 촉진하게 될것이다.

강 철 수

미국주재 중국대사

전략적오판을 재현하지 말것을 미국에 경고

미국주재 중국대사가 최근 중국보도사와의 회견에서 전략적오판을 되풀이하지 말것을 미국에 경고하였다.

그는 미국이 력사적으로 조선반도와 월남에서 전략적오판을 하였으며 두개 전쟁에서 커다란 대가를 치르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응당 이러한 실책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방송

중미사이의 군사적대립이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보도

로씨야의 스푸뜨니크방송이 최근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싸일 배비계획과 관련하여 중미사이의 대립이 격화되고있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방송은 중국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동풍-41》이 마지막시험단계를 거치고있으며 2016년말까지 그 전개가 완결될것이라고 전하였다.

방송은 중국국방부가 이 미싸일들을 신강위구르자치구의 군사기지에 전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곳에서 미싸일이 발사되는 경우 30분내에 목국상공을 비행하여 미국본토에 도달할수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저주와 규탄의 대상

세계의 악의 근원

로씨야의 체츠나공화국 수반 까디로브가 2일 리아 노보스찌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을 세계의 악의 근원으로 락인단죄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난 100여년동안에 세계적으로 일어난 130여차례의 분쟁에 개입하였으며 50여개의 나라들을 침략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야말로 그 어느 나라에도 비길데 없는 악의 근원이라고 규탄하였다.

미국방장관의 궤변 배격

중국의 국제문제전문가들이 텔레비죤방송에 출연하여 최근 미국방장관이 중국과 로씨야 등이 군사적으로 최대적수로 된다고 말한데 대해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국방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려고 의도적으로 적수를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이 중국과 로씨야를 적으로 만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어 사실을 외곡해가며 이 나라들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사기와 협잡의 상징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가 6일 정부의 고위관리들앞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을 믿을수 없는 나라로 락인하였다.

그는 미국은 사기와 협잡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정부의 처사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고 까밝혔다. 일부 서방나라들도 미국을 본따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때문에 이란정부와 인민은 굳게 단결하여 자체의 힘으로 부닥치는 난관들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란무력 총지휘참모부 부참모장이 8일 미국의 내정간섭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무장관이 이란의 미싸일계획에 관한 새로운 협상을 제의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철면피한 내정간섭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그는 나라의 미싸일개발을 가로막으려는 외세의 그 어떤 간섭책동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립장을 강조하였다.

미군기지이설반대기운

일본 오끼나와현에서 후텐마미공군기지의 현내이설을 반대하는 기운이 고조되고있다.

최근 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8.2%가 후텐마기지를 옮기려는 당국의 계획을 반대한다고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르헨띠나에서 반미시위

무엇을 노린 이스라엘행각인가

얼마전 미국가안전보장국장관 마이클 로저스가 이스라엘에 비밀리에 날아갔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이라고 하면 세계를 대상으로 도청 및 감시망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절취하는것을 업으로 삼고있는 정보기구이다. 이러한 미국정보계의 거물이 이스라엘에 도적고양이마냥 기여든것은 무엇때문인가.

로저스는 이스라엘군 제8200정보부대 사령관의 《손님》으로 정보기관 고위관리들의 마중을 받았다고 한다.

제8200정보부대는 이란핵시설에 대한 싸이버공격작전에서 이미 미국가안전보장국과 깊은 결탁관계를 가지고있는 부대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스툭스네트》비루스가 바로 미국가안전보장국과 제8200정보부대가 서로 머리를 맞대여 고안해낸 창안품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로저스의 이번 이스라엘행각목적이 싸이버분야에서 이스라엘과의 협조를 보다 긴밀히 하여 이란을 비롯한 반미적인 나라들에 싸이버공격을 단행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돌격대로 내세워 중동지역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전략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야심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면서 이를 파탄시키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획동하였다. 1996년부터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저지시킬 목적밑에 《올림픽경기대회》라는 대호로 명명된 싸이버공격작전을 추진시켜왔다. 그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은 《스툭스네트》라고 하는 싸이버공격프로그람을 이스라엘과 공동개발하여 이란핵시설들의 콤퓨터체계들을 공격하였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싸이버공격은 그후에도 계속 집요하게 감행되였다. 2010년에 《스툭스네트》를 보강한 새로운 악성프로그람 《마스크》를 개발하고 그것을 인터네트와 물리적으로 격리되여있는 이란핵시설의 내부망체계에 잠입시켜 새공격을 단행하였다. 그해 6월 이란의 나탄즈핵시설에 설치된 원심분리기중 1 000대가 일시 가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그때문이였다. 미국은 2012년에 《프레임》으로 불리우는 강력한 콤퓨터비루스를 또다시 이스라엘과 공동개발하여 이란정부 등의 콤퓨터를 감염시키고 핵개발에 관한 기밀정보를 훔쳐냄으로써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감행한 비법적인 정보수집행위들을 만천하에 발가놓아 유명해진 스노우덴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악성비루스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싸이버공격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폭로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란에 대한 싸이버공격에서 재미를 본 미국은 그 범위를 전세계에 확대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6억 5 200만US$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세계 각국 통신 및 콤퓨터망에 악성코드를 전파시켜 해킹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았다.

2013년에 다른 나라의 통신 및 콤퓨터망에 전파시킨 악성코드는 약 8만 5 000개에 달하였다. 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근 10만대의 콤퓨터에 감시쏘프트웨어를 삽입하고 인터네트에 련결되지 않은 콤퓨터에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절취하고있다.

미국은 싸이버공간을 해당 나라에 침입하지 않고도 그 나라 정부를 손쉽게 전복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기를 로출시키지 않고도 상대를 공격할수 있는 유리한 공간으로 간주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인류문명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정보기술수단들을 악용하여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인류를 해칠 새로운 테로방식들을 고안해내기에 여념이 없다. 미국방성이 얼마전에 외부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국방성의 콤퓨터망을 해킹해보게 한다는 특별계획을 세워놓고 싸이버안보상의 그 무슨 약점들을 찾아내여 퇴치하는 놀음을 벌려놓고있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생겨난 싸이버공간이 오늘 미국에 의해 하나의 테로공간으로 리용되고있는것은 개탄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야말로 싸이버공간을 전쟁마당, 테로마당으로 전변시키고있는 악랄한 해커제국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실패한 《핵안전수뇌자회의》

얼마전 미국에서 전략핵무기속감문제 등을 토의하는 제4차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로씨야가 참가하지 않았다. 2010년부터 2년주기로 열린 3차례의 《핵안전수뇌자회의》에 꼭꼭 참가해온 로씨야가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초점은 자연히 로씨야에로 쏠렸다.

로씨야는 자국이 제4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이 이번 회의참가국들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려 하지 않기때문이라고 그 리유를 명백히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등에 저들의 제안을 내리먹인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이번 《핵안전수뇌자회의》의 범위내에서 진행되는 5개의 회의중 로씨야가 1개 회의에만 참가하도록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로씨야는 오직 1개의 문제에 대해서만 결정을 내릴수 있게 되였다. 한마디로 미국은 로씨야가 최종결정을 채택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자국을 제3부류국으로 치부하려드는 미국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데로부터 로씨야가 이번에 진행된 제4차 《핵안전수뇌자회의》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였던것이다.

분석가들은 로씨야의 이번 행동이 돌발적인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품고있던 미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의 표출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실지로 전략공격무기축감문제를 놓고 로씨야와 미국사이에는 의견상이가 계속되여왔다.

력사적으로 볼 때 1991년에 이전 쏘련과 미국사이에 전략공격무기속감조약이 체결되였다. 랭전종식후 이전 쏘련의 계승국인 로씨야는 미국과 함께 이 조약의 의무를 지녀왔다.

로씨야는 전략공격무기속감조약의 의무를 리행하기 위해 성의를 보였다.

랭전이 끝난 후 로씨야는 수천기의 대륙간탄도미싸일과 잠수함탄도미싸일, 많은 대륙간탄도미싸일발사대와 수십척의 원자력잠수함 등을 폐기하였다. 2000년대초 핵무기제작에 리용되는 재료인 무기급플루토니움을 각각 34톤씩 폐기할데 대하여 미국과 합의를 본 로씨야는 이를 폐기하기 위한 전문기업들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 이 조약의 발효기간이 만료된 후 로씨야와 미국은 2010년에 새 전략공격무기속감조약을 체결하였다. 로씨야는 이 조약의 리행을 위해 저들의 핵잠재력을 합리적인 최저수준까지 축감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때마저도 핵무기축감을 외면하였다. 했다면 남아빠진 핵무기들을 폐기한것밖에 없다.

미국은 《축감》의 막뒤에서 저들의 핵무기현대화를 계속 다그쳐왔다. 앞으로 30년동안 핵무기현대화에 1조US$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핵탄두미싸일,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갱신하는것을 비롯하여 핵무기현대화에로 무분별하게 집주하고있다.

이 사실은 미국이 추진해온 《핵군축》이 전적으로 핵무기현대화에 복종하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철두철미 국제사회에 《핵군축》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인상을 주려는 타산밑에 로씨야와의 전략공격무기축감조약체결이라는 각본을 연출하였다.

로씨야는 앞에서는 《핵무기철폐》에 대해 력설하고 돌아앉아서는 핵무기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미국과는 핵무기축감을 놓고 마주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때문에 로씨야는 세계핵무기균형이 기울어지고있는 현상황에서 자기 나라와 미국사이에 핵무기축감문제에서의 쌍무회담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보고 지난 2월초 로미사이의 전략핵무기축감협상을 중단하였다. 이에 심사가 뒤틀린 미국이 이번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준비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유엔 등에 저들의 제안을 내리먹이며 비렬하게 놀아댄것이다.

이 《핵안전수뇌자회의》로 말한다면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다음 처음으로 고안해낸것이다.

집권전부터 《대통령이 된다면 핵무기없는 세계를 추구할것》이라고 입아프게 외워오던 오바마는 집권하기 바쁘게 2009년 4월 체스꼬의 수도 프라하에 날아들어 미국이 앞장에 서서 《핵군축》을 하며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만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또 핵전파방지, 전략핵무기축감문제를 거론하며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발기하였다. 이렇듯 집권초기부터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노벨평화상까지 따먹은 오바마이다. 하지만 소위 노벨평화상수상자의 《노력》으로 세계는 실지 핵무기없는 세계로 되였는가.

지금까지 4차례의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지만 세계의 비핵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암담해지고 핵무기철폐는 더욱 막연해졌다.

외신들이 세계의 비핵화가 오히려 7년전보다 더 료원해졌다고 전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바마는 결국 임기말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아무것도 해놓은것이 없는 빈털터리협잡군으로 나앉게 되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자신도 《핵무기없는 세계의 안전과 평화는 금작스레 찾아오지 않을것이며 모름지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불가능할것이다.》라고 범죄자로서 저들의 정체를 인정하였다. 오바마의 이 고백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국제무대에서 벌려놓은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얼마나 기만적인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전문가들은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소집한 미국의 목적이 세계를 핵군비경쟁의 도가니속에 빠져들게 한 저들의 죄행을 어떻게 하나 미화분식하려는데 있으며 이것은 세계최대핵범인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림 원

ㄱ-61064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납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